

MZ·X세대의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김건희*, 홍상옥*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영남대학교 교수*

Mediating Effect of Interest in Elderly Job Project and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Z and X Generation's Social Support and Retirement Readiness

Geon-hui Kim*, Sang-Ook Hong**

Department of Family Residence at Yeungnam University*,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MZ·X세대의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의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조사는 D광역시와 G도의 G시, Y시, A시의 MZ·X세대 359명의 수집자료를 SPSS 27.0과 AMO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및 빈도분석, t/F-검증,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적관계의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과 노후준비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은 부분 매개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MZ·X세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관심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지지체계로서 정서적, 평가적, 정보력, 물질적 지지체계의 마련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같은 정부기관의 노인일자리 사업정책의 현실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제어 : MZ·X세대, 사회적지지, 노후준비도,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est in the elderly job project and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retirement readiness of the MZ·X generation. This survey conducted reliability and frequency analysis, t/F-verification,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analysis of reliability and frequency using SPSS 27.0 and AMOS 27.0 programs on the collected data of 359 MZ and X generations of G, Y, and A cities in D and G provinces.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relationship statistic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interest in the employment project for the elderly,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readiness for old age.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retirement readiness, the degree of interest and resilience of the elderly job project were partially mediated.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MZ and X generations' interest in and resilience in the job projects for the elderly, the provision of emotional, evaluative, informational, and material support systems as a social support system and the elderly in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 realistic policy of job business policy is needed.

Key Words : MZ·X Generation, Social Support, retirement readiness, Interest in the Elderly Job Project, Resilience

Received 12 Oct 2022, Revised 17 Oct 2022

Accepted 20 Oct 2022

Corresponding Author: Sang-Ook Hong
(Yeungnam University)

Email: sanguk@yumail.ac.kr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저출산고령사회인 한국 사회는 2020년부터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어(황남희 등, 2021)[1]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높아지고, 전체 인구의 16.5%가 고령인구인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 20.3%(2025년)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통계청, 2021)[2].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에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인한 고령인구 증가 뿐만 아니라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퇴직 평균연령(49.3세)의 저하(매일경제, 2022) [3]와 같은 사회적 현상으로 노후 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노인세대의 문제로만 인식되었던 노후준비에 대하여 생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해 빠른 은퇴를 원하는 ‘파이어족(FIRE)’이 늘어나면서 일찍이 노후준비에 나선 영향력으로 분석된다(인사이트코리아, 2022)[4]. 최근의 조사(아시아경제, 2022)[5]에 의하면, 노후준비에 대해 응답자 80.6%가 노후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경제적 걱정을 93.2%로 꼽고 있다. 또한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와 ‘보통이다’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소득이 적은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MZ·X세대는 경제적 저성장과 저금리 그리고 낮은 고용안정성, 생산인구 감소와 생존기간은 길어진 사회에 살고 있어, 부모 세대보다 노후자금 축적이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그만큼 노후준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변혜원, 손지영, 2021)[6]. 은퇴 후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전 연령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금융경제, 2020)[7]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40~50대를 타겟팅한 개인연금 컨설팅(구예은, 문현정, 2022)[8]을 20~30대를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여 자금관리 서비스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정서적·사회적 노후 준비는 다루지 않아, MZ·X세대를 위한 노후준비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MZ·X세대를 연구 대상으로 노후준비도를 살펴 봄으로써 지금까지 노인세대 중심의 노후준비도가 탐색되어 왔다는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MZ·X세대의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의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

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MZ·X세대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이론적 틀을 확장시키고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MZ·X세대가 노후를 준비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실질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MZ·X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사회적지지,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사회적지지,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의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은 매개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MZ·X세대의 특징

MZ세대는 밀레니얼(M) 세대와 Z세대를 총칭하는 용어다. MZ·X세대를 출생연도로 구분하면, M세대는 1981년에서 2000년 사이에 출생하였고, Z세대는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다(Fry, 2018; Lee & Kim, 2021; 정혜승, 성민정, 2022)[9][10][11]. X세대는 1965년에서 1980년까지 출생한 집단이다(정혜승, 성민정, 2022).

MZ·X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MZ세대는 자기에, 자신감, 외향성이 높고, 외현적 보상 중시하며, 사회적 성공보다 자율성 확보를 중시한다(Lyons & Kuron, 2014)[12]. 경제적 풍요와 자유로운 의사표현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과 함께 성장한 특징이 있다(정혜승, 성민정, 2022). 문화시대 또는 정보화 1세대로 불리는 X세대는 베이비붐세대와 MZ세대 중간에 “깁세대” “샌드위치 세대”로 명명하며, 높은 경제성장과 불안정한 정치역사를 경험한 세대로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Fry, 2018; 정혜승, 성민정, 2022), 조직 내 성장 기회 확보를 중시하며 삶과 미래에 덜 긍정적인 경향이 있는 세대다(Lee & Yu, 2013)[13].

2.2 선행연구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 인해 노후에 대한 준비 인식의 전환이 전 세대에 걸쳐 형성되고 있다. 이에, MZ·X세대들의 노후준비에 대해 다루어지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예은과 문현정(2022)은 MZ·X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넉넉'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공격적인 투자 성향과 금융지식 보완하는 방식의 금융 데이터 및 정보, 컨설팅 제공으로 자금관리를 받는 지원 서비스와 온라인 소통을 선호하고 능숙한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한 온라인 노후준비 커뮤니티 제공으로 은퇴 이후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정서·사회적 지원에 대한 노후준비를 말한다. 변혜원과 손지영(2021)은 MZ세대의 은퇴저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후준비를 생각하지 않은 집단에게 '미래에 초점두기' 넋지를 통해 은퇴저축에 대한 관심 환기와 노후준비에 대한 동기 유발하는 효과를 시사했다. MZ세대인 20~30대의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MZ·X세대의 위와 같은 특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진 연구로는 세대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베이비붐세대, X세대, 그리고 MZ세대 간 차이에 관한 연구(김수정, 2000)[14], 일과 생활 균형 인식에 대해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오정희, 2020)[15], MZ·X세대를 대상으로 소비성향을 살펴본 연구로 특급호텔 레스토랑의 서비스스케이프가 고객 만족,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임수곤, 2022)[16], X세대, MZ세대의 외식지출 영향요인 연구(민지은, 한경수, 2021)[17] 등이 있으며, 또한, CSR은 MZ세대 조직 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세대 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정혜승, 성민정, 2022)가 있으나, 노후준비에 관해서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관심도,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에 관해 다룬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노후전문가 오오에히데키는 노후준비에 대해 "감축하는 삶인 노후의 삶은 적응해야 하고, 미리 준비해야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노후준비 필요 핵심을 'WPP'로 제시하였다. W(work longer)는 오래 일하기, P(Public Pension)는 공적연금, P(Private Pension)는 사적연금이라고 했고, 특히, W가 가장 중요하며 경제뿐만 아니라 고독 해결 수단과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조선경제, 2022)[18].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허슬(hustle)문화 거부와 소통과 출세를 싫어하는 특징을 가진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와 경제적 자유를 위해 조기 은퇴를 꿈꿨던 '파이어족(FIRE)'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고 있다. 기대수명과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령으로는 30대가 84.1%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여성이 85.3%,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자, 고학력자(대졸)에 월 가구 소득이 500만원~700만원의 높은 수준(85.0%)이 응답자의 주를 이루고 있다(매일경제, 2022)[19].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인터넷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정보기술(IT)에 능통한 특징이 있는 MZ·X세대를 중심으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 'N 잡리'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며(매경프리미엄, 2022)[20].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경제적 자립과 동시에 본인의 행복한 삶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아실현 성취를 더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MZ·X세대들은 그들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한 노후준비를 하는 데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매경프리미엄, 2022). 많은 연구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후준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김진희, 2016)를 바탕으로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사회적지지, 정부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을 채택하여 MZ·X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MZ·X세대의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의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MZ·X세대가 지닌 특성들이 노후준비도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대상으로 D 광역시와 G 도의 G 시, Y 시, A 시에 소재하는 근로자(기업, 공무원, 농·수산업 종사자)로 구성된 MZ·X세대인 20대, 30대, 4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22년 5월 20일부터

2022년 6월 20일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 문항의 신뢰도, 타당도를 구하였으며, 부적절한 문장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는 2022년 7월 15일에서 8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368부 중 무응답 및 응답이 누락된 불성실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최종 359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하였다.

3.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3.2.1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박지원(1985)[21]이 개발하고 유은경, 설현수(2015)[22]가 사용한 척도로 총 25문항의 4개 하위변인(정서적, 평가적, 정보력, 물질적)으로 5점 Likert 척도이다. 개발 시 간접적 지지 지지척도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9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6로 나타났다.

3.2.2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척도는 3개 부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MZ·X세대들의 관심도를 측정하는 총 13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6로 나타났다.

3.2.3 회복탄력성(Resilience)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23]이 한국 실정에 적합하게 수정한 척도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이다. 총 27문항의 3개의 하위변인(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계수가(Cronbach's α) .90으로 나타났다.

3.2.4 노후준비도(Preparation for old age)

본 연구 노후준비도는 최은영(2015)[24]의 은퇴 준비 척도를 김건희(2016)[25]가 사용한 척도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총 32개 문항에 4개의 하위변인(정서적, 신체적, 여가적, 관계적)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다.

3.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및 AMO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적지지,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의 신뢰도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문항 내적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분석(Reliability analysis)하였다. 둘째,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셋째,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Scheffé-검증을 실시하여 연구 대상자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회적지지,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과 Sobel-test를 실시하여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의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MZ·X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사회적지지,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에 차이가 있는가?

분석한 결과 연령별과 학력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4.1.1 사회인구학적 특성

MZ·X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Table 1>에서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170명(47.4%)과 여자 189명(52.6%)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87명(24.2%), 30대가 107명(29.8%), 40대가 165명(46.0%)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 형태는 독신가구 형태가 124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부부와 자녀(미혼) 가구가 114명(31.8%), 부부 가구가 71명(19.8%), 부부와 자녀(기혼) 가구가 38명(10.6%)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이상이 209명

(58.2%)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는 87명(24.2%), 고졸은 63명(17.5%)으로 나타났다. 생활상태는 보통은 251명(69.9%), 여유가 있는 편은 78명(21.7%), 어려운 편은 30명(8.4%)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인 MZ·X세대는 20대가 포함되어 있어 독신가구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59)

변수	범주	N	백분율(%)
	계	359	100.0
성 별	남	170	47.4
	여	189	52.6
연령 대별	20대	87	24.2
	30대	107	29.8
	40대	165	46.0
가족 형태	독신	124	34.5
	부부	71	19.8
	부부와 자녀(미혼)	114	31.8
	부부와 자녀(기혼)	38	10.6
	본인과 자녀(미혼)	7	1.9
학력	본인과 자녀(기혼)	5	1.4
	고졸	63	17.5
	전문대졸	87	24.2
	4년제 이상 졸	209	58.2
생활 실태	여유가 있는 편	78	21.7
	보통	251	69.9
	어려운 편	30	8.4

4.1.2 MZ·X 세대별(연령대별) 사회적지지, 노인 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에 차이 검증

MZ·X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지지와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하였다. 그리고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방법을 활용하여 사후분석(Post-hoc) 하였다.

분석 결과, MZ·X세대의 성별, 가족형태, 생활실태별에 따른 사회적지지,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Table 2>와 <Table 3>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연령과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MZ·X세대의 연령대별 사회적지지와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그 결과, 사회적지지($F=3.74, p<.05$)와 노후준비도($F=14.85,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정서적, 정보력, 물질적 요인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의 여성가족부, 노후준비도의 경제적,

<Table 2> MZ·X세대의 연령별 사회적지지,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의 차이 검증 (N=359)

변인	M (SD)			F-검증	Scheffé	
	20대 ^a	30대 ^b	40대 ^c			
사회적지지 전체	3.78(.59)	3.86(.53)	3.68(.53)	3.74*	c<b	
사회적지지	정 서 적	3.83(.66)	3.88(.65)	3.66(.61)	4.41**	c<b
	평 가 적	3.84(.63)	3.88(.57)	3.74(.59)	2.01	n/a
	정 보 령	3.69(.72)	3.87(.58)	3.68(.57)	3.50*	n/a
	물 질 적	3.75(.65)	3.81(.58)	3.62(.62)	3.33*	n/a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전체	2.42(.74)	2.41(.84)	2.60(.76)	2.67	n/a	
노인일자리 사업관심도	보건복지부	2.47(.78)	2.44(.86)	2.64(.79)	2.29	n/a
	고용노동부	2.43(.84)	2.38(.90)	2.58(.81)	2.13	n/a
	여성가족부	2.14(.99)	2.30(1.00)	2.50(.93)	4.16**	n/a
회복탄력성 전체	3.51(.47)	3.55(.43)	3.51(.44)	.26	n/a	
회복탄력성	통 제 성	3.45(.52)	3.54(.48)	3.54(.51)	.96	n/a
	공 정 성	3.50(.59)	3.55(.53)	3.50(.53)	.34	n/a
	사 회 성	3.58(.53)	3.55(.52)	3.48(.52)	.99	n/a
노후준비도 전체	2.79(.48)	3.04(.57)	3.19(.55)	14.85***	a<b,c	
노후준비도	경 제 적	2.65(.69)	2.94(.71)	3.06(.68)	9.69***	a<b,c
	신 체 적	3.05(.66)	3.21(.70)	3.27(.73)	2.81	n/a
	여 가 적	2.66(.67)	2.71(.81)	2.82(.76)	1.46	n/a
	관 계 적	2.78(.77)	3.17(.84)	3.48(.81)	21.69***	n/a

* $p<.05$, ** $p<.01$, *** $p<.001$

관계적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Post-hoc) 결과, 사회적지지 전체와 하위변인인 정서적에서 30대가 40대에 비해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도는 전체와 경제적 하위요인에서 30대, 40대가 20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1.3 MZ·X세대의 사회인구학적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 차이 검증

<Table 3>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학력에서 사회적지지 전체($F=5.48, p<.001$)와 회복탄력성 전체($F=4.88,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전문대졸, 대졸의 학력이 고졸에 비해 사회적지가 높으며, 정서적($F=6.22, p<.001$) 하위변인, 평가적($F=4.00, p<.01$) 하위변인, 물질적($F=4.76, p<.001$)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회복탄력성에서는 전체($F=4.88, p<.001$)와 하위변인인 긍정성($F=3.16, p<.05$), 사회성($F=7.4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Post-hoc) 한 결과, 회복탄력성 전체와 하위변인인 사회성에서 고졸보다 4년제 이상의 학력집단이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MZ·X세대의 학력별 사회적지지,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의 차이 검증 (N=359)

변인	M (SD)			F-검증	Scheffé	
	고졸 ^a	전문대 졸 ^b	4년제 이상 졸 ^c			
사회적지지 전체	3.55(.52)	3.78(.48)	3.81(.57)	5.48***	a<b,c	
사회적지지	정서적	3.52(.60)	3.77(.50)	3.84(.69)	6.22***	a<b,c
	평가적	3.62(.56)	3.81(.50)	3.86(.64)	4.00**	a<c
	정보력	3.56(.56)	3.80(.59)	3.77(.64)	3.40*	n/a
	물질적	3.49(.63)	3.72(.59)	3.77(.62)	4.76***	n/a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전체	2.54(.71)	2.55(.78)	2.47(.81)	.17	n/a	
노인일자리사업관심도	보건복지부	2.57(.74)	2.56(.80)	2.52(.84)	.30	n/a
	고용노동부	2.52(.74)	2.53(.83)	2.46(.89)	2.26	n/a
	여성가족부	2.41(.87)	2.52(1.0)	2.26(.98)	.37	n/a
회복탄력성 전체	3.39(.43)	3.48(.36)	3.58(.47)	4.88***	a<c	
회복탄력성	통제성	3.41(.51)	3.53(.45)	3.54(.52)	1.77	n/a
	긍정성	3.38(.48)	3.49(.48)	3.57(.58)	3.16*	n/a
	사회성	3.37(.53)	3.43(.44)	3.61(.54)	7.43***	a<c
노후준비도 전체	3.02(.55)	3.06(.54)	3.05(.57)	.11	n/a	
노후준비도	경제적	2.89(.66)	2.88(.77)	2.95(.70)	.39	n/a
	신체적	3.15(.78)	3.24(.65)	3.20(.70)	.27	n/a
	여가적	2.70(.59)	2.68(.78)	2.79(.79)	.88	n/a
	관계적	3.23(.82)	3.32(.80)	3.17(.89)	.10	n/a

* $p<.05$, ** $p<.01$, *** $p<.001$

4.2 사회적지지,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MZ·X세대의 사회적지지와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 그리고 노후준비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피어슨(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측정 변수별 정상분포 조건을 검증하기 위해 왜

도, 첨도를 산출한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노후준비도의 관계적 하위변인은 사회적지지의 정서적($r=.24, p<.01$), 평가적($r=.22, p<.01$), 정보력($r=.24, p<.01$), 물질적($r=.21, p<.01$) 하위변인에서 $p<.01$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도의 신체적 하위변인은 사회적지지의 평가적($r=.12, p<.05$)의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에서는 노후준비도의 경제적, 신체적, 여가적 하위변인에서 보

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p<.01$ 수준에서 정(+)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
에서는 노후준비도의 경제적, 신체적 하위변인에서 회
복탄력성의 통제성, 긍정성에서 $p<.01$ 수준에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여가적 하위요인에서는 통제성과
 $p<.01$ 수준, 관계적 하위변인에서는 회복탄력성의 통제

성, 긍정성, 사회성에서 $p<.01$ 수준에서 정(+)
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측정 변수들의 왜도 값이 $-47\sim.50$ 이고 첨도 값은
 $-.69\sim 1.11$ 로 West, Finch & Curran(1995)[26]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왜도(Skewness) <2 , 첨도(Kurtosis) <7 의 기준에
충족하는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가 나타났다.

<Table 4> 사회적지지,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의 상관관계 (N=359)

변수	사회적지지(A)				노인일자리사업관심도(B)			회복탄력성(C)			노후준비도(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A	2	.82**	1											
	3	.68**	.72**	1										
B	4	.65**	.67**	.79**	1									
	5	.09	.07	.02	.00	1								
	6	.06	.07	.03	.03	.82**	1							
C	7	-.03	-.00	-.01	-.02	.66**	.73**	1						
	8	.52**	.54**	.57**	.51**	.09	.07	.06	1					
	9	.48**	.52**	.51**	.43**	-.06	-.06	-.07	.57**	1				
	10	.48**	.48**	.50**	.45**	-.09	-.09	-.11*	.51**	.65**	1			
D	11	.07	.09	.01	-.00	.29**	.24**	.29**	.33**	.20**	.08	1		
	12	.09	.12*	.06	.04	.20**	.18**	.21**	.26**	.28**	.06	.61**	1	
	13	.03	.07	.06	.03	.33**	.31**	.30**	.23**	.07	-.03	.50**	.53**	1
	14	.24**	.22**	.24**	.21**	.03	.01	.05	.37**	.26**	.15**	.31**	.26**	.23**
M	3.77	3.81	3.74	3.71	2.54	2.48	2.35	3.51	3.52	3.53	2.92	3.20	2.75	3.22
SD	.64	.60	.62	.62	.81	.85	.97	.50	.54	.52	.71	.70	.76	.85
왜도	-.43	-.32	-.47	-.32	-.12	.05	.42	-.11	.27	.06	.02	-.35	.50	-.23
첨도	.53	.21	-.09	-.21	-.38	-.48	-.28	.01	-.15	.39	-.21	.53	1.11	-.69

** 상관계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계수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사회적지지(A): 1.정서적 2.평가적 3.정보력 4.물질적,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B): 5.보건복지부 6.고용노동부 7.여성가족부, 회복탄력성(C): 8.통
제성 9.긍정성 10.사회성, 노후준비도(D): 11.경제적 12.신체적 13.여가적 14.관계적

4.3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의 관계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은 매개하 는가?

4.3.1 측정모형 적합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

(1) 측정모형 적합도

MZ·X세대의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의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을 위한 측정모형을 설정하고, 검증에 위하여 측정
변수가 관측변수를 잘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측정모형 검증에는 사회적지지를 측정하는 4개의 관
측변수(정서적, 평가적, 정보력, 물질적), 노인일자리사
업 관심도를 측정하는 3개의 관측변수(보건복지부, 고용
노동부, 여성가족부), 회복탄력성을 측정하는 3개의 관

측변수(통제력, 긍정성, 사회성), 노후준비도를 측정하는
관측변수(경제적, 신체적, 여가적, 관계적)를 사용하였
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 평가를 위해 홍세희
(2000)[27]가 제시한 CFI, NFI, TLI(NNFI) 범위는 0~1
사이고 모형 적합도는 .9이상이며, RMSEA의 범위는 0
~1사이고 적합도는 .05이하(.05~.1적합)이다(노경섭,
2016)[28]. 본 연구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는 $\chi^2=280.127$,
(df=71, $p<.001$), CFI =.93, NFI=.90, TLI=.90,
RMSEA=.09으로 검증되어 연구모형으로 채택하였다.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하기 위하여 측정모형
의 모든 검증 대상 비표준화 λ (람다)의 C.R.(Critical Ra
tio) 값이 $p<.05$ 기준에서 1.96 이상이므로 검증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Table 5>에서 확인되었다.

측정모형의 평가를 위하여 Fornell & Larcker(1981) [29]가 제안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신뢰도는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C.R.)로 측정하고, 타당성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을 통하여 검증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은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구성개념 타당성을 측정하였다(우종필, 2022)[30]. 본 연구 측정모형은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 검증을 통하여 구성개념의 타당성(con struct validity)을 확인하였다. 집중 타당성의 수용기준은 표준화 λ (람다)는 .5이상(.7 이상이면 바람직)이고, 평균분산 추출(AVE) 값은 .05이상이며, 개념 신뢰도(C.R.) 값은 .7이상이어야 한다(Fornell & Larcker, 1981; 노경섭, 2016). 본 연구자는 노경섭(2016)의 산출 근거를 참고하여 집중 타당성을 직접 산출하였고, 검증 결과는 $\lambda=.62\sim.94$, AVE=.80~.94, C.R=.92~.98로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사회적지지,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 확인적 요인분석 (N=359)

모수 (Parameter)	추정치	비표준화 계수(A) B	S.E.	C.R.	P	추정치 표준화 계수(A) β	AVE	C.R. (개념 신뢰도)
사회적지지	→ 정서적	1.00	-	-	-	.86	.94	.92
	→ 평가적	.96	.04	21.74	***	.89		
	→ 정보력	.95	.05	20.24	***	.85		
	→ 물질적	.90	.05	18.54	***	.80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 보건복지부	1.00	-	-	-	.87	.90	.93
	→ 고용노동부	1.14	.05	22.36	***	.94		
	→ 여성가족부	1.06	.06	17.82	***	.77		
회복탄력성	→ 통제성	1.00	-	-	-	.75	.93	.98
	→ 긍정성	1.15	.08	14.09	***	.80		
	→ 사회성	1.01	.08	13.01	***	.73		
노후준비도	→ 경제적	1.00	-	-	-	.79	.80	.98
	→ 신체적	.96	.08	12.31	***	.76		
	→ 여가적	.88	.08	11.15	***	.66		
	→ 관계적	.80	.09	11.10	***	.62		

*** $p<.001$

판별 타당성은 서로 독립된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고 상관관이 낮을수록 잠재변수 간 판별 타당성이 있고, 변수 간의 평균분산 추출(AVE) 값이 상관계수 제곱(r^2) 값보다 반드시 커야 한다(우종필, 2022). 본 측정모형은 노경섭(2016)이 산출한 근거를 참고하여 산출하였고, 검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 변수 간 상관계수 중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값 .77로 나타났고, 상관계수의 제곱(r^2)은 .59이었다. 평균분산 추출(AVE) 값 .93이 상관계수 제곱(r^2) 값보다 크므로 판별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이때 가장 높은 변수 간 상관을 선택한 것은 높은 상관일수록 판별 타당성이 낮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우종필, 2002).

<Table 6> 판별 타당성 검증 (N=359)

구분	사회적지지	노인일자리사업관심도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	AVE	C.R.(개념 신뢰도)
사회적지지(r^2)	1				.94	.92
노인일자리사업관심도(r^2)	.058(.003)	1			.90	.93
회복탄력성(r^2)	.768(.590)***	-.038(.001)	1		.93	.98
노후준비도(r^2)	.119(.014)*	.354(.125)***	.339(.115)***	1	.80	.98

* $p<.05$, ** $p<.01$, *** $p<.001$

4.3.2 구조모형 분석 및 매개효과 검증

(1) 연구모형 검증

측정모형 분석에서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였으므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는 경로계수를 통하여 가설들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변수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 적합도는 $\chi^2=360.220$ ($df=72, p<.001, NFI=.91, TLI=.90, CFI=.91, RMSEA=.10$)으로 노경섭(2016)

의 권장수준인 .9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연구가설 검증

MZ·X세대의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의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매개) (N=359)

모수 (Parameter)	추정치 비표준화 계수(λ) B	추정치 표준화 계수(λ) β	S.E.	C.R.	P	
→ 노인일자리사업관심도	1.00	.48	-	-	-	
→ 회복탄력성	.64	.77	.05	12.19	***	
→ 노후준비도	.58	.47	.15	3.92	***	
사회적지지	→ 정서적	1.00	.79	-	-	-
→ 평가적	1.12	.87	.06	19.05	***	
→ 정보력	1.15	.86	.06	18.93	***	
→ 물질적	1.09	.82	.06	17.56	***	
노인일자리사업관심도	→ 노후준비도	.29	.47	.04	7.56	***
→ 보건복지부	1.00	.93	-	-	-	
→ 고용노동부	1.04	.96	.03	32.85	***	
→ 여성가족부	.98	.84	.04	23.70	***	
→ 노후준비도	1.04	.66	.18	5.71	***	
회복탄력성	→ 통제성	1.00	.77	-	-	-
→ 긍정성	1.12	.79	.08	14.19	***	
→ 사회성	.98	.72	.08	13.00	***	
노후준비도	→ 경제적	1.00	.82	-	-	-
→ 신체적	.95	.79	.07	13.98	***	
→ 여가적	.88	.68	.07	12.43	***	
→ 관계적	.55	.49	.08	6.84	***	

*** $p<.001$

연구모형 각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모형 분석결과, 첫째, 사회적지지가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beta=-.47, p<.001$)는 통계적으로 부(-)적 영향이 유의미하게 미쳤고, 사회적지지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eta=.77,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적지지가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eta=.48,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가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eta=.47,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회복탄력성이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eta=.66,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매개효과 검증

MZ·X세대의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의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노후준비도의 매개효과 검증은 <Table 8>과 같다.

분석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총효과와 직접효과는 각각 $\beta=.48(p<.001)$ 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도에 대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는 총효과와 직접효과는 각각 $\beta=.47(p<.001)$ 로 나타났다. 또한, 회복탄력성에 대한 사회적지지 총효과와 직접효과 각각 $\beta=.77(p<.001)$ 와 노후준비도에 대한 회복탄력성에서도 총효과와 직접효과 $\beta=.66(p<.001)$ 가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지지→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노후준비도와 사회적지지→회복탄력성→노후준비도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의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아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의 부분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의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아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 test 검증한 결과 <Table 9>와 같다. 사회적지지→노인일자리아 관심도→노후준비도의 검증치 Z값이 1.93($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사회적지지→회복탄력성→노후준비도의 검증치 Z값은 5.88($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 경로 분석(Path Analysis)에서 특정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통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총효과(Total Effect)는 직접 및 간접효과를 더한 효과다. 직접효과(Direct Effect)는 독립변수(X)가 종속변수(Y)에 미치는 영향효과고, 간접효과는 독립변수(X)가 매개변인(M)을 경유하여 종속변수(Y)에 미치는 효과이다.

<Table 8> 측정변수 간의 총효과와 직·간접효과

(N=359)

경로		종속변수(Y)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독립변수(X)	매개변수(M)				
사회적지지	→	노인일자리아 관심도	.48***	.48***	-
노인일자리아 관심도	→	노후준비도	.47***	.47***	-
사회적지지	→	회복탄력성	.77***	.77***	-
회복탄력성	→	노후준비도	.66***	.66***	-
사회적지지	→ 노인일자리아 관심도 →	노후준비도	.30***	-.47***	.77***
사회적지지	→ 회복탄력성 →	노후준비도	.30***	-.66***	.96***

* $p<.05$, ** $p<.01$, *** $p<.001$

<Table 9> Sobel-test 검증

(N=359)

독립변인 (X)	매개변인 (M)	종속변인 (Y)	X→M	M→Y	Z(ab)
			a(SEa)	b(SEb)	
사회적지지	→ 노인일자리아 관심도	→ 노후준비도	.506(.057)	.089(.045)	1.93*
사회적지지	→ 회복탄력성	→ 노후준비도	.535(.032)	.396(.063)	5.88***

* $p<.05$, ** $p<.01$, *** $p<.001$

5. 결론 및 시사점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MZ·X세대의 특성이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의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아 관심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Z·X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와 노인일자리아 관심도,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의 차이검증 결과, MZ·X세대를 나타내는 20, 30, 40대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가 20대에 비해 사회적지지 높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는 20대에 비해 30대가 주변인으로부터 받는 지지 자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위요인의 정서적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연령별로 본 노후준비도에서는 30대, 40대가 20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관계적 하위요인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학력별로 사회적지지와 노인일자리아 관심도,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의 차이검증 결과,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과 대졸의 학력이 고졸에 비해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에서는 고졸보다 4년제 이상의 학력집단이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MZ·X세대는 고학력인 경우가 주변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 자원이 많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평가적, 물질적 하위요인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MZ·X세대의 사회적지지와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회복탄력성, 노후준비도의 상관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정서적, 평가적, 정보력 하위변인과 노후준비도의 관계적 하위변인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은 노후준비도의 경제적, 신체적, 여가적 하위변인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회복탄력성의 통제성, 긍정성은 노후준비도의 경제적, 신체적 하위변인과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MZ·X세대에서 사회적지지와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은 노후준비도와 정적 상관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이 매개하는지를 살펴 본 결과, 사회적지지→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노후준비도와 사회적지지→회복탄력성→노후준비도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은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대한 결과, 첫째, MZ·X세대의 사회적지지,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회복탄력성이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노인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정책과 교육이 실시되었으나, MZ·X세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조성과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MZ·X세대들의 사회적 인정과 평가로 인한 인센티브를 정부 정책으로 제도화할 것과 MZ·X세대가 자기를 개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시대적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MZ·X세대를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MZ·X세대가 인생설계를 장·단기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황남희, 이원진, 진화영, 이상협, 안서연 (2021).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

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통계청 (2021). 2021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p2.
- [3] 매일경제 (2022.3.8.). ‘근로자 퇴직 연령 평균 49.3세...비자발적조기퇴직 늘어’.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3/216431>에서 2022년 9월 10일 인출.
- [4] 인사이트코리아 (2022.4.12.). MZ세대가 연금저축으로 노후준비 나서는 까닭. 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014에서 2022년 9월 15일 인출.
- [5] 아시아경제 (2022). MZ세대 10명 중 8명 ‘노후불안’... 연금 이해도는 낮아. <https://www.asiae.co.kr/article/2022100921455952889>에서 2022년 9월 15일 인출.
- [6] 변혜원, 손지영 (2021). 2020/2021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 MZ세대의 은퇴저축.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8), 1-205.
- [7] 금융경제 (2020.12.7.) 박진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소장, “2030도 벌써 은퇴준비... 노후에 대한 관심 늘어날 것”. www.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776.
- [8] 구예은, 문현정 (2022). 넉넉: MZ 세대를 위한 조기 노후 설계 서비스 컨셉 제안.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08-309.
- [9] Fry, R. (2018). Millennials are the largest gene. *Pew Research Center*. Retrieved from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8/04/11/millennials-largest-generation-us-labor-force>.
- [10] Lee, H., & Kim, J. (2021). Analysis of food consumption behavior due to COVID-19:Focusing on MZ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3), 47-54.
- [11] 정혜승, 성민정 (2022). CSR은 MZ세대 조직 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CSR 효과의 세대 간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홍보학 연구*, 26(1), 1-32.
- [12] Lyons, S., & Kuron, L. (2014). Generational differences in the workplace : A review of the evidence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5(1), 139-157.
- [13] Lee, H., & Yu, G. (2013). Work-life balance of generation Y : The meaning and the role in view of generational work value.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13(4), 1-31.

- [14] 김수정 (2000). 세대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베이비붐세대, X세대, 그리고 MZ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1), 29-58.
- [15] 오정희 (2020). 일-생활 균형 인식에 대한 세대와 직위의 효과.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임수곤 (2022). 특급호텔 레스토랑의 서비스스케이프가 고객 만족,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 X세대와 MZ세대를 비교하여. *경성대학교 대학원 의식경영학석사 학위논문*.
- [17] 민지은, 한경수 (2021). 토빗분석을 적용한 X세대, MZ세대의 외식지출 영향요인.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6(3), 284-292.
- [18] 조선경제 (2022.10.7.). “은퇴하면 욕실 휴지부터 채워라... 아내와는 세입자처럼” [행복한 노후 탐구].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2/10/07/HYPZEL74DRCSZHFD7B2YLVWU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에서 2022년 10월 10일 인출.
- [19] 매일경제 (2022.9.1.). “다시 돌아갈래”... 깨진 ‘4%룰’에 3040 파이어족 재취업 ‘봄’ [언제까지 직장인].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9/773118/>.
- [20] 매경프리미엄 (2022.9.17.). 요즘MZ, 돈보다 이것 때문에 파이어족 꿈꾼다.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2/09/32463>.
- [21]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2] 유은경, 설현수 (2015). 사회적 지지 척도의 요인구조 탐색. *한국조사연구학회*, 16(1), 155-184.
- [23]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 청소년 연구*, 20(4), 105-131.
- [24] 최은영 (2015). 1·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25] 김건희 (2016). 뉴실버세대의 자기효능감이 노후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 욕구와 노인일자리 사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West, Finch & Curran (1995).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56-75, CA, Sage.
- [27]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임상심리학 저널*, 19(1), 161 -177.
- [28] 노경섭 (2016).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서울 : 한빛아카데미 출판사.
- [29]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30] 우종필 (202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 한나래 출판사.

김 건 희(Kim, Geon Hui)



- 2018년 8월 :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족주거학과 가족복지상담 박사 수료
- 현재 : 구미시청 공무원
- 관심분야 : 복지, 상담, 정책
- E-Mail : kmj0413k@naver.kr

홍 상 옥(Hong, Sang Ook)



- 소속 : 2022년 10월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족주거학과 교수
- 학력 : 1990년 3월 : 일본오사카 시립대학 학술박사(생활복지학전공)
- 현재 : 한국복지상담학회 회장
- 관심분야 : 가족코칭상담 및 복지, 부모교육
- E-Mail : sanguk@yu.ac.kr